

악재속 빛나는 벤처캐피탈... 수익률·합병으로 '방긋'

컴퍼니케이, 공모가 2배 올라
7년간 IRR 수익률 17% 달해
'바이오업체' 툴젠-제넥신 합병
VC업체들에 투자금 회수 기회

벤처캐피탈(VC) 업체가 올해 초 기업공개(IPO)를 잇따라 철회했지만 일부 VC업체는 호재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을 연기했거나 준비 중인 VC가 상장을 적극 추진하고, VC 관련주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컴퍼니케이, 청산 펀드 수익률로 주가 호조

지난 5월 23일 코스닥에 상장한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이하 컴퍼니케이)는 주가가 공모가인 4500원보다 2배 이상 올라 화제가 되고 있다.

컴퍼니케이는 펀드들의 연환산 청산 펀드수익률(IRR)이 최근 7년간 17.1%로 높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다른 국내 VC들의 IRR은 업계 평균 10.3%라는 것을 볼 때 1.7배나 앞서고 있다.

황유선 컴퍼니케이 부사장은 "올해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지난 5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현철 한국IR협회 부회장,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김학범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대표, 이강신 NH투자증권 부사장, 송윤진 코스닥협회 부회장. /한국거래소

'농림축산투자조합' 펀드를 IRR 18%라는 높은 수익률로 청산한 데다 이번 주 청산하는 직방·네오팩트 등 우량 기업에 투자한 '컴퍼니케이방송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 펀드도 IRR이 20.8%로 매우 높다"며 "직방·샌드박스·브릿지바이오 등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펀드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올해 실적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사는 이번 주 펀드 청산시 성공 보수로 약 40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컴퍼니케이가 영화 '기생충'에

투자했다는 점이 주가 상승의 호재가 됐다. 컴퍼니케이는 총 결성액 120억원의 '우리은행-컴퍼니케이 한국영화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생충에 투자한 금액은 10억원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컴퍼니케이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작용했다. 회사 측은 "상장 VC 평균 대비 컴퍼니케이의 주가수익비율(PER) 기준 할인율은 55%,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 할인율은 19%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149억원, 영업이익82억원, 당기순이익62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은55%에 달해 실적 면에서도 호조를 보였다. 또한 회사 측은 올해 순이익 8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윤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컴퍼니케이는 2020년까지 10개 기업의 IPO가 예상되는 스타트업원펀드, 200억원 규모의 기업 초기 단계에 투자하는 챌린지펀드 등 청산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정돼 있어 고수의 창출이 기대된다"며 "고수익성의 펀드 청산을 통한 수익의 재투자로 출자 비중이 확대돼 배분수익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VC업체 호재

그동안 코스닥 문을 두드려왔던 바이오업체인 툴젠이 여러 차례 코스닥 상장에 실패하자 기존 코스닥 상장회사인 제넥신과 합병을 선택해 VC업체에겐 호재가 기대된다. 제넥신은 지난 19일 툴젠을 흡수합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6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했던 툴젠이 최근 코오롱티슈진 사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기업들이 악재를 겪는 상황에서 상장 대신 합병

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VC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 L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14년에 이어 2016년 툴젠에 추가로 투자해 12.66%(지난해 말 기준)의 지분율로 툴젠의 2대 주주로 자리매김했다. 또 2016년에는 KTB네트워크, 인터베스트 등이 투자에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IMM인베스트먼트가 툴젠이 진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동안 VC업체들은 툴젠의 코스닥 상장 실패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합병으로 수익 실현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올해 VC업체인 미래셋벤처투자가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도 VC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래셋벤처투자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힌다. 또한 정부가 최근 현재 1조원 수준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힌 점이 이 회사의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셋벤처투자가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사 중 한 곳이기 때문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KB증권 해외선물 패키지 할인

KB증권은 오는 9월 말까지 약 3개월간 해외선물 고객 대상 '해외선물 USD 1.9 패키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국내 고객들이 많이 거래하는 주요 해외선물 상품들을 패키지로 구성해 상품 거래 시 할인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해외선물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패키지 상품'은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지수선물(나스닥100·S&P500·다우)과 에너지선물(원유, 미니 원유) 등 총 12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영지 기자



하이투자증권 신규고객 '핫한주식' 이벤트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8월 22일까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신규고객(휴먼포함)을 대상으로 '핫한주식' 이벤트를 실시한다. '핫한주식' 이벤트는 이벤트대상 고객에게 로보어드바이저 스톡봇이 추천하는 5가지 종목 중 고객이 선택한 한가지 주식(만원당)을 100% 증정하는 이벤트다. 고객이 선택한 종목이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높은 기간 수익률을 달성할 시에는 이벤트 참여시기에 따라 해당 주식을 최대 4배까지 추가 지급하며 선택한 주식에 대한 다양한 투자정보도 실시간 제공된다. /손영지 기자

한양증권, 관행 탈피... 임재택의 '변화와 혁신' 通했다

BPR도입 10개월... 업무 211건 개선 스마트워크 추진 '워라밸' 발 맞췄

한양증권이 전사 부문 업무프로세스 혁신(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통해 업무효율화를 최대치로 끌어 올리고 있다.

24일 한양증권에 따르면 전사 부문 업무프로세스 혁신(BPR) 도입 후 10개월 만에 211건의 업무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3월 신입 임재택 대표이사(사진) 취임 후



해 업무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한양증권은 관행적 업무에서 탈피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 효율화 ▲업무 표준화 ▲페이퍼리스의 3대 원칙을 BPR 추진 방향으로

'변화와 혁신'을 목표로 업무혁신을 시도한 결과다. 사실상 TF로 시작한 조직은 올해 1월 O&T(Operation & Technology) 부서로 전환

설정했다. 영업점 수십 가지 일일 업무를 하나의 전산 결재로 통합하고, 전화로 업무처리 시 불편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양증권 O&T부 박상훈 부사장은 "전사 부문의 BPR을 통해 효율성 제고와 핵심업무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영업부서 지원 기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시스템 도입으로 단순반복 업무를 전산화 함으로써 인력운용 효

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스마트워크 시스템 구축까지 이뤄지면 직원의 주52시간 근무와 워라밸 트렌드에도 부응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RPA시스템으로 실시간 기사 검색을 통해 필요 기사를 홍보 담당자 휴대폰 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홍보팀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퍼리스 사무환경도 구축했다. 이를 위해 부서장 이상 그룹에 태블릿 PC를 지급했고, 결재 및 각종 회의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이 줄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기준금리 인하 기대... 증권업계 '好好'

ELS발행 ↑ 2분기 실적 만회할 듯

올해 2분기 시작점부터 국내 증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가 실적 전망을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맞물려 채권수요가 늘면서 채권평가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2분기 실적 감소를 방어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또 위험자산으로 잘 알려진 ELS(주가연계증권)도 발행규모가 점점 늘고있어 증권사의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채권금리가 연일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한 주(6월14일~20일)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주 대비 6.80bp(1bp=0.01%포인트) 하락한 1.42%를, 국고채 10년 금리는 7.70bp 하락한 1.

55%를 기록했다. 크레딧 스프레드도 한 주간 국고 금리가 급락하며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시장금리 하락(채권값 상승)은 증권사의 채권운용이익으로 돌아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채권보유액은 지난해 말 기준 196조원을 기록했으며 올 1분기에는 203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3%나 증가했다. 1분기 기준으로 채권평가액이 300억원 안팎으로 반영된 것을 감안, 2분기에는 금리 하락 폭이 컸던 만큼 평가이익이 1분기보다 더 늘었을 것이라 분석이다.

증권사의 ELS 발행도 올해 들어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과 별개로 위험자산으로 잘 알려진 ELS에 투자자가 물리는 이유는 증시가 저점일 때 투자하고 이후 반등할 때에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유진 기자 ujn6326@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조감도.

BRT 지나는 산업·연구단지 '중심지'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내달 분양

코오롱글로벌과 동부건설은 오는 7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4-2 생활권 L3, M5블록에서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을 분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세종시 4-2생활권에서 분양하는 마지막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다. '세종 하늘채 센트레빌' L3, M5블록은 전용면적 59~99㎡, 총 81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가 위치한 행정

중심복합도시 4-2 생활권은 테크밸리(계획)를 비롯해 산업단지, 연구단지 등으로 개발되는 부지다. 세종시청과의 거리가 4km여서 공공기관 접근성이 좋고 BRT(간선급행버스)를 통한 세종시 내부로의 이동이 쉽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 자족성 확보를 위해 4-2생활권에 특성화대학 유치용 공동캠퍼스타운(60만㎡)을 오는 2023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